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
(루카 24,51)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르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묵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홍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기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 인간의 품위를 들어 높이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합니다.

• 제1독서

사도 1,1-11

• 입당송 사도 1,11 참조

• 화답송 시편 47(46),2-3.6-7.8-9(◎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여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예페 1,17-23

• 복음환호송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24,46-53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저마다 예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에서 위로를 얻고, 예수 성심께 세상을 향한 연민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2.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서로 비난하고 외면하는 남과 북을 살피 주시어, 한 민족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3. 홍보 주일을 맞아, 홍보 매체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홍보 매체에서 일하며 주님과 주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현대의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며 공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친교의 주님, 예수 성심 성월을 맞은 저희 중동 한인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모든 이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삶 안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영성체송

마태 28,20

[아캠] 전담 사제 휴가 일정

아캠 전담 사제이신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 휴가 일정입니다.

- ▶ 여름 휴가 : 6월 16일(월) ~ 7월 17일(목)
- ▶ 로마 순례 : 7월 20일(주일) ~ 8월 4일(월)
(남아라비아 대목구 대표로 세계 청년 대회
사전 준비 회의 및 로마 성지 순례)



※ 이 기간 중에도 아부다비 / 두바이 공동체의 한인 '미사'는 지속됩니다.

※ '아캠 주보'는 이 기간 중 발행되지 않으며, 연중 제19주일 주보(8월 10일, 219호)부터 발행이 재개됩니다.

[아부다비] 남아라비아 대목구 주교님 사목 방문



- ▶ 기 간 : 6월 5일(목) ~ 6월 9일(월)
- ▶ 장 소 : 아부다비 성 요셉 주교좌 성당
- ▶ 미 사 :  의례와 기념 미사 (6월 5일, 목 18시 30분)
 감사 미사 (6월 8일, 주일 18시)

[교회] 교황님 6월 기도 지향



6월: 세상을 향한 연민

우리가 저마다 예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에서 위로를 얻고, 예수 성심께 세상을 향한 연민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두바이 공동체> 세례와 견진성사

‘이원정 유스티나’, ‘윤주희 스텔라’ 세례·견진을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5 월 22 일 11:00 am

<두바이 공동체> 상반기 공동체 전체 식사 나눔



5 월 25 일 5:00 pm



‘성모 성월을 기념하며..’

함께하며, 하나되며
중동한인
AKCME가
통리공동체
모습들



아부다비

5월 17일 12:00 pm



쿠웨이트

5월 23일 3:00 pm



두바이

5월 25일 2:00 pm



‘성모 성월을 기념하며..’

함께하며, 하나되며

중동한인
AKCCME가톨릭
공동체

모습들



카이로(이집트)

5월 23일 5:30 pm



카타르

5월 27일 6:00 pm



차연경 모니카 (두바이 공동체)

우리들의

<묵상과 나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지난 4월 재속프란치스코회 피정과 입회식이 있어서 검사검사 서울에 들어갔습니다. 재속회 양성 기간은 4년입니다. 대부분 zoom을 통해 참석합니다. 하지만 피정이나 예식이 있을 때는 서울에서 직접 참여해야 하는 관계로, 현재 봄과 가을에 한국을 방문하는 호사 중입니다.

재속회원으로 살겠다! 노후 준비는 재속회지! 야심찬 결심으로 시작했지만 공부가 부담스럽습니다. 때때로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지식'에 그치는 제 자신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힘듭니다. 안다고 뭘 더 알겠습니까. 그래도 머리만 키워 잘난 체 중인 저를 보면 부끄러워서, 공부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몇 해 전 아캠 시리즈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저도 두바이 공동체의 '원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후배들한테 뭔가 모범이 되고 싶지요. 멋있잖아요!! 또 프란치스코 1회 사제들이 사목하는 본당 소속이니, 성 프란치스코가 궁금했구요.

지난해 처음 "노트북 모니터 속" 자매가 되어 '양성 교육'도 받고, '구역 모임'과 '월례 미사'도 참여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참여인지라,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합니다. 또 몸으로 부대끼는 동기들에 비해 형제자매로서 끈끈하거나 편해졌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덕분에 실제로 만날 때 저 혼자 어색해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신기술의 도움으로 참여는 하나, 시간을 들여 부대끼며 키워가는 형제애는 아직 상상 속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만 서먹하겠습니까. 가르쳐 주시는 봉사자 선생님도, 선배들도, 동기들도 모두 편치 않겠지요. 그런데도 최대한 받아주고 있을테지요.

지원반 수업은 대학교 1학년 '개론' 수업처럼 뜬구름 같이 알듯 말듯 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전기도 읽고, 그 당시 시대 상황도 배웠고, 형제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2년간 '회칙'을 배웁니다. 총 3장 26조의 간단한 회칙이 뭐가 그리 특별한지 아직 안 배워서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꼭 동네방네 알려 드릴게요.

회칙은 모르구요. 재속프란치스코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평신도입니다. 사제나 수도자처럼 세속을 떠난 것이 아닌데도 그리스도의 형제와 제자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까요? 교회가 '평신도'의 역할을 인정한 것은 겨우 70여 년 전, 20세기 중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였습니다. 그런데 13세기 사람 프란치스코는 남자 수도회와 여자 수도회, 그리고 '회개하는 형제자매들의 회-지금의 재속프란치스코회'를 함께 세웠습니다. 이는 그가 '회개자', 즉 '평신도의 신분'으로 그의 신앙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세속을 떠나지 않고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가능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속프란치스코 선배들은 세상 속에서 평신도의 신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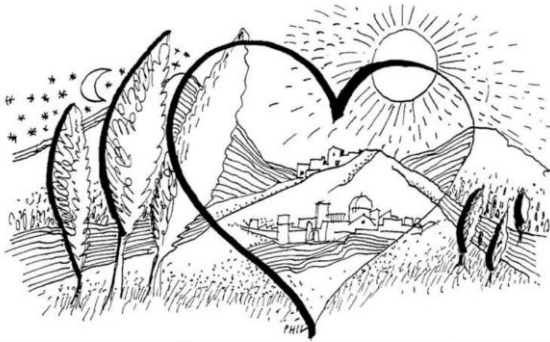


우리들의

<묵상과 나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활동을 800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 생활은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도 있고, 중요한 의사 결정에 평신도 단체의 의견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의 역할이나 직무사제직, 보편사제직, 같은 용어에도 익숙하고 평신도의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와 시민혁명, 잦은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산업혁명 같은 변혁의 시대를 겪던 유럽 어느 구석에 신용협동조합을 열고, 빈민 병원이나 구호소를 운영하던 평신도들의 회가 있었겠구나 이제 어렵듯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록 조금이지만 쫓고, 한순간이긴 하지만 작은 일에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저의 약함을 잘 아는 그분께 약함을 더 드러내고 더 투덜대야지 마음먹습니다. 맛있고 싶은 제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편해지고 자유워지고 싶은 저도 역시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제 나약함을 숨기고 겉꾸미려고만 하면 그건 하느님 사랑을 덜 믿는 거라면서요? 고해성사 때 신부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자매님이 뭘 잘해서, 뭘 많이 배워서, 뭘 일을 많이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자매님이 자매님이라서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미사에 들어가던 저는 이 길에 꼭 붙어 있고 싶은 욕심쟁이입니다. 저를 잘 아시니 알아서 잘 해주시겠거니 물론 배짱도 부립니다. 알렐루야.

(위 신부님은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 계시는 이정환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입니다. 운이 좋으면 12시 10분 평일 직장인 미사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입니다. 꼭 우리 두바이 성당처럼 가림막 하나 두고 고해합니다. 다들 용기를 내시와요☺)





예수 성심 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송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부활 삼종 기도

(주님 부활 대축일 ~ 성령 강림 대축일)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선 . 생 . 님 . 궁 . 금 . 해 . 요 .



<19> 성경(聖經)과 성전(聖傳)

첫영성체 교리를 하다 보면 아이들 모습에서 얼핏 부모 모습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미사 참여도 빠지지 않으며 늘 기도하는 가정은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기도문을 잘 외우고 대답도 잘합니다.

첫영성체 교리과정 가운데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성경 쓰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쓰고 있다는 한 학생이 "선생님! 성경은 첫영성체 교리 시간에 배워서 알겠는데 성전은 뭐예요?"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첫영성체 교리과정 중에 자세히 배웠는데, 성전이란 말은 처음 접하니 궁금했나 봅니다. 성경과 성전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聖經)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느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총 73권으로, 구약 46권·신약 27권으로 엮여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쓰인 책, 신약 성경은 이후에 쓰인 책입니다.

성전(聖傳)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하느님 말씀이 기록되는 대신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느님 말씀을 온전히 후세 사도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설교로 충실히 보존하고 설명해 널리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 지상에서 지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이전에 하느님 말씀이 있었기에 성전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천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첫 권이 나온 때는 기원후 40년경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10년 쯤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은 성경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받아적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도 성경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성전은 계시 진리 등 성경에 없거나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것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 줍니다. 예를 들면 연옥에 관한

교리나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관습 등입니다.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과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유권적 해석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곧 하느님의 계시로 믿어야 한다고 계시된(「계시헌장」 10항) 모든 것을 신앙으로, 성경과 성전에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성전, 교회의 교도권은 하느님의 가장 현명하신 계획에 의해 성령의 작용 아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상호 연관돼 있고 결합돼 있습니다.

성전의 내용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알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요한 21,25)

그런데 가톨릭교회 외에 다른 개신교 교파는 성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성전의 주인공인 가톨릭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있던 성경 중에는 분실돼 지금까지 전해오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좁은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쿨란 유적지에서 발굴된 구약성경 사본. 이 두루마리 사본은 당시 최고(最古) 구약 사본보다 최소 1000년 전에 쓰인 것으로 판명났다. 가톨릭 평화신문 DB

2025 상반기 아캠 공용 줌(zoom) 사용 일정 (5/27, 2025 업데이트)

- 공용 줌은 아캠 내 모든 한인 공동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하는 단체는 '아캠 사무국'에 일정을 알려주십시오.

요 일	UAE 시간	모 임	비 고
주일			
월요일	8:30 ~ 10	아부다비 수험생 기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9 ~ 20	두바이 레지오 마리아 (첫째, 셋째, 다섯째 주 목요일)	사막의 별 Pr. (단장: 052. 879. 4841)
금요일			
토요일	20 ~ 21	아캠 상임위 회의	작수 달 네번 째 토요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아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
--	--	--